

# 四象體質 診斷法の 文獻的 考察

- 外形, 心性, 證을 爲主로 -

鄭元教\* · 金鍾元\*

## The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Jung Won-gyo, Kim Jong-weon*

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Eui University

### 1. Purpose of study

There are many Constitution theories. But, In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theory and the practice are connected systematically. So it has been used in Korea popularly. Lee Je-Ma suggested that the external form, the mind, the symptom are the criteria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at the Discourse on the Four Principle and the Discourse on the Identifying Four Constitutions.

But The clinical importance study of three diagnostic criteria - the external form, the mind, the symptom - has never been studied. Therefore, there are many obstacles of using the three diagnostic criteria totally. And I think that it needs a study which we apply the three diagnostic criteria to practice and approve the clinical importance of one another. I classify and investigate the previous methods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by the three diagnostic criteria in this study.

---

\*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 2. Method of study

I investigate the previous methods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bibliographically by Dongyi Soose Bowon, Journal of Constitutional medicine and other books.

## 3. Result of study

### ① Study of the external form

The Study of Ki-sang(氣像) and Sa-ki(詞氣) by experience and intuition was done previously, and study of imaginay formulation of each constitution by measuring Chae-hyung(體形) and yong-mo(容貌) has being done recently.

### ② Study of the mind

For the objectification of study and diagnosis, self-reporting questionnaire has been used. The ideal choice to determine an indivisual constitution, as far as questionnaire go, is to take results from both the modified version Sasang Pattern Identification Questionnaire and QSCC II.

### ③ Study of the symptom

For the study of the symptom - constitution symptom and constitution symptom of disease - the study of principles, the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the study which the pathologic view of Oriental medicine apply the view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ave been done. We must try to objectfy Sasang Constitutional disease.

# 초 록

## 1. 연구목적

동서양과 고금을 통해 많은 체질 이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이론과 임상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의 四端論, 辨證論 등에서 체질진단의 근거로 外形, 心性, 證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세 가지 기준별 임상적 중요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임상에서 세 가지 진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향후 세 가지 체질진단 기준을 임상에 적용하여 각각의 기준이 지니는 임상적 중요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보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임상적 연구에 앞서 기존의 체질진단 연구를 外形과 心性, 證의 세 가지로 분류, 고찰하는 기초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東醫壽世保元〉과 사상의학회지 및 사상의학 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문헌적 고찰을 하였다. 본론에서는 그 간의 연구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열거하였으며, 고찰에서는 임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나 이미 완료된 연구 위주로 논하였다.

## 3. 연구결과

### ① 外形에 관한 연구

경험과 직관적 관찰을 통한 氣像과 詞氣 위주의 연구가 선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體形과 容貌의 실제 계측을 통한 각 체질별 이미지 정형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체질진단의 정확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균형있게 활용해야 한다.

### ② 心性에 대한 연구

각종 연구나 진단의 객관화 등을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기법이 체질진단에 응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함에는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Ⅰ)의 판별식을 이용한 결과와 QSCCⅡ의 결과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臟에 대한 연구

체질증과 체질병증에 대한 연구는 원리론적 연구와 체질별 임상증상 유형에 관한 연구, 기존의 증치의학적 병증관을 사상의학적 병증개념에 적용시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향후 현대적인 의미의 다양한 병증을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객관화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체질의 편차를 야기시키는 근본적 문제인 臟局의 大小 및 臟理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중심단어 : 사상의학, 체질, 외모, 심성, 증

## I. 緒 論

체질이란 각 개인이 가진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특징을 합하여 일컫는 말로써, 선천적 유전인자와 후천적 환경요소에 의하여 형성된 개개인이 지니는 類型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체질 학설이 있었으나 서양의 체질 학설은 신체적, 심리적 특징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에 그쳐 치료 의학으로서의 효용이 적었으나,<sup>1)</sup> 이제마의 사상체질 이론은 그 이론적 근거와 임상적 활용에 있어서 체계적이며 일관적이므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sup>2)</sup>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이라 하여 태소음양인은 天理의 변화로써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四端論〉의 맨 첫머리에서 ‘人稟臟理’와 ‘人趨心慾’을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장부대소와 심욕이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바, “人稟臟理 有四不同하니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이요,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이요,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이요,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이라. 人趨心慾 有四不同하니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이요,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이요,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이요, 棄仁而極慾者 名曰 食人 이다”라고 하였다.<sup>3)</sup>

그리고 <東醫壽世保元·辨證論>에서는 “明知其人而又明知其證 則應用之藥 必無可疑” 라고 하여 明知其人과 明知其證을 종합하여 체질을 감별하도록 하였으며<sup>4)</sup>, 體形氣像, 性質才幹, 體質證, 恒心, 完實無病 등의 체질진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辨證論>에서 재차 “人物形容 仔細商量 再三推移 如有迷惑則 參互病證 明見無疑 然後 可以用藥” 라고 하여 人物形容, 즉 體形氣像과 容貌詞氣가 체질진단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그 바탕 위에서 병증을 참모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이제마는 外形, 心性, 證(생리적, 병리적)의 세 가지를 체질진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의 체질진단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포괄적이고 직관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임상에서 체질진단시 의사 개인의 경험과 체질관에 따라 체질진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하거나 혹은 이제마가 제시한 체질진단 기준 중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체질진단시 세 가지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려 하여도 外形, 心性, 證의 항목 중에서 각각의 중요도나 비중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임상적인 경험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세 가지 진단기준에 따른 체질진단법을 임상에 적용하여 각각의 기준이 지니는 임상적 중요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체질진단을 위한 여러 연구와 논문들을 外形과 心性, 證의 세 가지 진단기준으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기초연구를 하고자 한다.

## II. 本 論

### 1. 外形에 관한 연구

#### 1) 體形氣像에 관한 연구

권영식<sup>5)</sup>의 乳臍尺度法, 이병행<sup>6)</sup>의 유방 및 장골 척도법, 박석연<sup>3)</sup>의 사상두부촉진법, 이문호 등<sup>7)</sup>의 “사상체질 유형과 체격 및 신체형태지수와의 비교연구”, 허만희 등<sup>8-9)</sup>의 “四象體質의 形態學的 圖式화를 위한 연구”, 홍석철 등<sup>10)</sup>의 “體幹部의 四象體質別 形態學的 특징에 관한 연구”, 이의주 등<sup>11)</sup>의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가 있다.

#### (1) 박석연<sup>3)</sup>의 사상두부촉진법

##### ① 태음인은 頭部顔面이 圓形四角形이다.

頭皮가 “厚軟”-두텁기 때문에 두 손으로 만져보면, 촉감적으로 부드러운 감을 느낀다. 四象人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물렁물렁하다.

- 태음인은 後頭部 침골이 단원하고 평평하다. 四象人 중에서 가장 침각이 없는 사람이다.
- 소음인 중에도 간혹 머리끝이 둥글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으나, 극히 드물다.
- 태음인은 얼굴 이마가 넓은 편이고, 눈썹 양쪽 사이가 넓은 사람이 많다.

##### ② 소음인은 두부와 안면이 원삼각형이다. 안면이 납작하게 생긴 사람도 있다.

- 頭部의 근육피질이 “薄強”-얇게 생겼기 때문에 두 손으로 만져보면, 실제로 단단하다.
- 소음인은 後頭部 중앙부의 침골각이 예리하게 생겼다. 後頭와 앞이마가 전후로 나온 사람도 있다.
- 소음인은 얼굴이 길쭉하게 생긴 사람이 많으며 四象人 중에서 길게 생긴 사람이 가장 많다.

③ 소양인은 두형이 원돌출형이다. 前頭, 後頭가 돌출한 사람이 많다.

- 頭部와 안면이 동글동글한 사람도 있고, 길쭉하게 생긴 사람도 있다.
- 頭部の 근육피질은 건강한 편이다. 頭部를 두 손으로 만져보면, 강도를 느낀다.
- 後頭部の 침골은 微凹하다. 간혹 尖利한 사람도 있다.

④ 太陽人は 頭形이 신체에 비하여 圓大形이다.

- 太陽人의 안면이 圓, 長한 편이다.
- 頭部の 근육피질이 건강하여 두 손으로 만져보면 강도를 느낀다.
- 後頭部の 침골은 微凹하다.

(2) 이문호 등<sup>7)</sup>은 사상체질 유형과 체격 및 신체 형태지수와의 비교연구에서 남녀고등학교 3학년 학생 673명을 대상으로 身長, 座高, 胸圍, 體重의 성적과 상반신사진을 통해 사상체질 유형과 체격 및 신체형태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

(3) 허만희 등<sup>8-9)</sup>은 “四象體質의 形態學的 圖式化를 위한 연구”에서 東武의 기본적 원리 내에서 외형적 體形氣像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형태학적 도식화를 시도한 바 있으며, 이어서 四端論과 擴充論, 臟腑論의 사초개념에 입각하여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사초개념에 입각한 오종부위의 측정치를 통해 형태학적 도식화를 시도하였고, 도식화에서 도출된 오종부위의 측정치로써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태학적 도식화의 객관적 타당성과 오종측정부위의 체질 판별능력을 입증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4) 홍석철 등<sup>10)</sup>의 “體幹部의 四象體質別 形態學的 특징에 관한 연구”

체질진단용 설문지 1번, QSCC(Ⅱ), 맥진, 침진

의 진단 방법을 이용하고 사상의학 전문의에 의해 체질진단된 건강한 20대에서 40대까지의 성인 남자 40명과 여자 20명을 대상으로 Rapid 3D Color Scanner를 사용하여 삼차원 영상을 촬영한 후 해부학적 구조를 근거로 31항목의 체적, 전표면적, 높이를 측정하고 25가지의 사초 가설을 설정하여 각 체질별 사초의 삼차원적인 특징을 구하였다. 체간부 측정 항목의 절대치와 사초부위의 절대치의 비교를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여 특징을 연구하였고, 체간에서 사초가 차지하는 비율과 각 체질별 사초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5) 이의주 등<sup>11)</sup>의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

생체를 8-10분절로 분획하고 인체계측 및 침수법 및 평형측정판법을 이용하여 각 신체분절의 생체역학적 특성을 사상체질별로 객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방법은 신체분절길이 및 둘레와 골폭 및 스킨폴드 두께는 Lohman 등의 인체계측 부위 및 방법에 따라 42개 항목과 사초부위의 9항목으로 총 51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침수법에 의하여 부피를 측정하고 밀도공식에 의하여 질량을 산출하였고, 평형측정판법에 의하여 무게중심을 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QSCCⅡ를 시행하고, 사상체질의학을 전공한 한의사가 사상체질진단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성인 남자 49명과 여자 23명으로 총 72명이며, 평균연령은 29.4±8.54세이고 태음인 30명, 소양인 17명, 소음인 25명이었으며, 사초의 측정기준은 전면은 廉泉, 天突, 鳩尾, 神關, 曲骨이었고, 후면은 神庭, 大椎, 脊中, 腰陽關, 長強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남자의 경우 둘레와 체적, 상대적 체적, 무게중심, 사초길이에 대한 분석 등에서 체질별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여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자에 비해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이의주 등<sup>11-12)</sup>은 「記 연구<sup>11)</sup>와 연관된 “四象人의 形態學的 특징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안면부를 제외한 頭頸部, 體幹部, 四肢部를 계측함으로써 ① 사상체질별 인체계측항목을 분석하고, 인체계측항목을 이용한 3차원 물리량을 계산하여 ② 수학적 모델 제시하며, ③ 사상체질별 체형의 형태학적 특징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을 두었다. 사초의 측정기준 및 연구방식은 위의 연구<sup>11)</sup>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 2) 容貌詞氣에 관한 연구

容貌詞氣에 관한 연구는 東醫四象診療醫<sup>13)</sup>의 내용, 辨證十條<sup>14)</sup>의 내용, 권영식<sup>15)</sup>의 사상체질감별법에 관한 연구, 고병희 등<sup>16)</sup>의 “四象體質別 頭面部的 形態學的 특징”, 홍석철 등<sup>17-18)</sup>의 “四象體質別 上顏部的 形態學的인 특징에 관한 연구”와 “耳目鼻口에 대한 四象人의 形態學的 특징을 정량화한 연구”가 있으며, 김주<sup>19)</sup>는 그의 저서 性理臨床論에서 체질별 안면부의 특징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 (1) 권영식<sup>15)</sup>의 사상감별법에 대한 연구

- 鼻腔이 露滑한 자는 태음인이 많고, 眼光이 炯明한 자는 소양인이 많으며, 眼球가 漆을 점찍은 듯 黑한자는 태음인이 많다.
- 地閣(턱)이 豊厚한 자는 태음인이 많고, 口大하고 턱이 薄한자는 소음인에 많고, 唇이 薄하고 턱이 尖한 자는 소양인에게 많이 있다.
- 眼, 鼻, 口에 剽銳한 氣가 있는 자는 소양인에게 많이 있으며, 안구가 돌출된 자는 소양인에 많다.
- 如搖如輕(까부는 것)자는 소양인에 많고, 如依

如重(기대기 잘하는 것)자는 소음인이 많고, 不動而靜者(잘 움직이지 않는 것)는 태음인에 많이 있다.

- 鄭聲(言語鄭重) 不欲言者(말이 없는 것)는 태음인에 많고, 輕言(무엇이든지 가볍게 말하는 것)자는 소양인에게 많이 있으며, 多言者(重言復言)는 소음인에게 많다.
- 氣如有餘者(용기가 있는 것)는 소양인이 많고, 氣如不足者(용기가 없는 것)는 소음인이 많고, 氣血如餘者(씩씩한 모습)는 태음인이 많고, 威猛如餘者(위압한 모습)은 太陽인이 많다.
- 容貌多情者(얌전한 모습)는 소음인이 많고, 容貌剽銳者(날카로운 모습)는 소양인이 많고, 容貌厚重者(둔하게 보이는 모습)는 태음인이 많다.

### (2) 東醫四象診療醫<sup>13)</sup>

체질진단을 위한 근거로 다양한 부분을 논하고 있는데, 특히 容貌詞氣論에 해당하는 容貌, 體證, 聲音 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靈樞·通天篇>의 五行體質論과 사상체질을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3) 辨證十條<sup>14)</sup>에서는 기상, 특징, 행보, 성음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언급되었다.

(4) 문성환<sup>4)</sup>은 “四象醫學에서의 形象醫學 정신과 證治醫學에서의 形象醫學 정신의 비교고찰 연구”에서 증치의학과 사상의학의 형상의학적인 면을 다음과 같이 비교,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증치의학에서는

- ① 人身의 上中下部를 面의 上中下停에 배속할 수 있다.
- ② 水形 土形 營養質과 같은 形은 대개 氣虛하고 濕痰이 많으며, 下停이 발달되어 있다.

- ③ 木形 心性質과 같은 形은 대개 陰虛 또는 血虛하며, 上停이 발달되고 下停이 위축되어 있다.

사상의학에서는

- ① 面形에서 氣의 上下升降의 편차로 陽人은 上停이 발달하고, 陰人은 下停이 발달하였다.
- ② 面形에서 氣의 前後進退의 편차로 陽人은 돌출형이고, 陰人은 흡수형이 나타난다.
- ③ 소양인은 이마부위의 上停이 발달하고 증치의학적 관점에서는 陰虛·血虛로 인해 下停이 위축되고 木形·心性質과 같은 形이 나타난다.
- ④ 태음인은 體와 面의 면적이 대체로 제일 크며, 증치의학적 관점에서는 濕이 많고 下停이 발달된 水形·土形·營養質과 같은 形이 나타난다.
- ⑤ 소음인은 자연스럽고 간략하다고 하며 소양인과 같이 面의 면적이 태음인보다 크지 않으나, 증치의학적 관점에서는 陽虛·氣虛를 뜻하는 面白色이 많이 나타난다.

(5) 고병희 등<sup>16)</sup>의 “四象體質別 頭面部的 形態學的 특징 연구”

전일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된 동의수세보원의 형태적 묘사를 정량화하여 정리하고, 이 자료를 체질진단의 근거자료로 삼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頭顔部の 형태를 태음인·소음인·소양인별로 그 형상적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1995년 7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경희의료원 부속한방병원 외래환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임상적 치료 경과를 통하여 체질적 경향성이 뚜렷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동일촬영 조건을 통하여 얻은 얼굴사진 중 형태 특이자를 제외한 170례의 高徑(전두고와 26항목) 放射徑(두최대장의 22항목) 및 幅徑(안최대폭의 18항목등) 등 총 69항

목을 측정 한 후 이를 분석하여 체질별 상이점을 도출하였다.

사상체질과 얼굴형태와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찾아보기 위하여 Martin식 계측법을 사용 170인의 대상자들의 頭顔部에 대하여 생체계측학적 연구를 시행하여 ①체질별 고경측정치 및 구성비 ②체질별 방사경측정치 및 구성비 ③체질별 폭경측정치 및 구성비 ④체질별 면적비 ⑤체질별 부분 특성 ⑥체질별 上顔部 등고선 분석 ⑦체질판별공식 등을 분석 연구하여 각 체질의 형태학적 특징에 관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층화계층별(남녀별 연령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세분화하는 연구 및 계측방법의 자동화(3차원 영상계측장치)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안면부에 국한하지 않고 각 부위별로 전신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모아레에 관한 분석방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6) 홍석철 등<sup>17)</sup>의 “四象人 耳目鼻口の 形態學的 특징 연구”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사상인의 형태학적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로서 특별히 안면부의 구성요소인 耳目鼻口の 외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고병희 등<sup>17)</sup>의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연구”와 동일한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위의 논문<sup>17)</sup>이 두면부의 외곽선 및 구조물들의 고경과 폭경 및 방사경 등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한데 비하여 본 논문은 안면부의 구성요소인 耳目鼻口の 형태를 분석 연구하였다.

〈연구 및 측정방법〉

1997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사상의학과에 내원한 외래환자, 직

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체질 경향성이 모호하거나 형태가 특이하여 전체 통계치에 영향을 줄만한 경우를 제외하고 209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체질진단을 위하여 사상체질설문지 (I) 및 QSCCI, 藥診 및 針診 등 임상적 검증을 통한 사상체질진단을 거쳐 사상의학을 전공한 전문의의 판정에 의하여 체질을 확정하였다.

측정은 확대한 사진상을 이용한 간접측정을 원칙으로 했으며, 좌측 부위의 耳目鼻口를 측정하였다. 촬영한 안면부의 정면, 측면, 45도 사면 등의 사진을 통하여 耳目鼻口의 고경, 폭경, 방사경 및 각도를 측정하여 사상인에 따른 형태학적 차이를 연구하였다.

사상인별 형태학적 특징을 정량적으로 찾아보기 위하여 마틴식 계측법을 준용하여 209명(소양인 72명, 소음인 69명, 태음인 68명) 대상자들의 耳目鼻口에 대하여 생체계측학적 연구를 시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 앞서 홍석철 등<sup>20)</sup>은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형태학적 연구"에서 소음인의 형태학적 특징에 대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7) 홍석철 등<sup>18)</sup>의 "四象體質別 上顔部の 形態學的인 특징에 관한 연구"

上顔部에 나타나는 등고선의 형태가 사상체질에 따라 다르다는 보고<sup>17)</sup>가 있었으나, 이 보고는 上顔部 등고선의 좌우편향을 단지 육안적으로 관찰하여 체질별 경향성을 제시하였기에 본 연구는 moire를 이용하여 육안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上顔部 표면형상의 3차원적 형태를 체질별로 구별화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1996년 4월부터 1997년 2월까지 경희의료원 부속한방병원 외래환자 및 직원 250인을

1차분으로 수집하여 이 중 체질적 경향성이 모호한 자, 형태 특이자 등을 제외하고 계측의 용이함 등을 고려하여 113인을 선정하였다. 계측방법은 上顔部에 등분된 중횡의 구획을 정하고 중앙으로부터 발생하는 5개의 등고선을 취하여 이 등고선과 횡단면이 만나는 좌표를 구한 후 사상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좌측부위 측정점에서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음인은 소음인과 소양인에 비하여 우측이 전방으로 돌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8) 김주의 體質通察法<sup>19)</sup>

김주<sup>19)</sup>는 그의 저서 性理臨床論에서 類形과 下顎形이 체질을 파악하는 大體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류주열<sup>21)</sup>은 東醫四象醫學講座에서 김주의 형상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相을 보는 순서는 얼굴 전체의 모양과 윤곽, 크기 등을 우선 살피고, 그 다음 기운의 흐름을 살피고, 다음에 얼굴에서 눈에 띄는 특징을 찾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마→眉間→눈→코→입→턱(목)의 순서로 관찰하도록 하였다.

2. 心性에 관한 연구

1) 사상체질진단 설문지 연구

현재까지 心性에 관한 연구는 心에 대한 분석의 한계성 때문에 설문조사지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사상체질분류검사지는 동의수세보원 및 격치고의 내용에 근거하여 문항을 다듬어서 타당성 및 표준화 작업을 거쳐 현재 software로 개발되어 임상에 응용되고 있다.<sup>2)</sup> 이 설문지에는 체형이나 병증 등에 관한 문항도 있으나 주로 심성에 관한 문항이 위주가 되므로 심성 연구로 분류한다.

이의주 등<sup>22,24)</sup>의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김선호 등의 "사상체질분류검사



지(QSCC)의 타당화 연구”와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표준화 연구”, 이정찬 등<sup>23·26)</sup>의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와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타당화 연구”, 김달래 등<sup>27)</sup>의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박성식 등<sup>28)</sup>의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 일치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1)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sup>22)</sup>

고병희는 1985년 ‘사상변증론 소고’에 이어 1987년 사상체질변증 방법론 연구의 기초작업으로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Ⅰ)를 작성하였다. 이 설문지는 <東醫壽世保元>에 근거하여 기본 설문지를 작성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기질과 성격의 조사문항을 체질별로 묶어 측정기준의 모호함을 완화시키고, 각 문항의 순서를 ① 태음인 ② 소음인 ③ 소양인 ④ 태양인 ⑤ 기타로 정리하고 문항의 구성을 재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 ① 육체적 특징
  - 외모(문항 1-3)
  - 보행상태(문항 4), 發汗여부(문항 5)
  - 面貌, 眼, 胸部, 腰部, 四肢, 皮膚, 音聲, 大小便(문항 6-15)
- ② 체질증(문항 16), 체질병증(문항 17)
- ③ 정신적 특징
  - 태음인의 기질 및 성격 13항목(문항 18)
  - 소음인의 기질 및 성격 13항목(문항 19)
  - 소양인의 기질 및 성격 13항목(문항 20)
  - 태양인의 기질 및 성격 14항목(문항 21)
- ④ 음식 : 음식의 기호(문항 22-23), 음식의 온냉 기호(문항 24)

본 설문지는 1995년 이의주 등<sup>22)</sup>에 의해 타당화 연구를 실시한 결과 평균정확율은 50.8%로 나왔으며 소양인이 설문지에 의해 소양인으로 판별될 확률은 35%이고, 태음인이 태음인으로 판별될 확률은 34.4%이고, 소음인이 소음인으로 판별될 확률은 83.0%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체질감별은 소음인에게 높은 정확율을 가져오지만 다른 체질에 있어서는 판별의 오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타당화 연구를 통해 체질점수를 상대점수로 환산하여 판정한 경우, 판별식을 적용하여 판정한 경우, 다른 체질과 차이있는 경향이 있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문항(반응빈도율이 높은 문항 의미)을 판별식에 적용하여 판정한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 반응빈도율이 높은 문항에 판별식을 적용한 경우가 평균정확율 57.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이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 (2)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의 타당화 연구<sup>23)</sup>

김선호 등은 설문조사 방식을 응용한 사상체질분류검사를 개발하였고, QSCC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객관화되고 체계화된 체질감별법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만들어진 QSCC로 1992년 2월부터 4월까지 일반 환자와 대학생을 포함한 총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로부터 나온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 (3)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표준화 연구<sup>24)</sup>

본 연구는 QSCC를 개발한 김선호 등이 QSCC의 진단정확율이 60%에 못미치는 것과 평가 절차가 표준화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설문지 QSCCⅡ를 만든 다음 설문지 응답점수에 대한 평가를 각 계층별(연령, 성별, 생활 수준별)로 다르게 하는 표준화 작업을 함으

로써 QSCCⅡ를 이용한 체질진단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검사지의 각 척도는 변량분석 결과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검사지의 문항은 진단변별력이 인정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② 검사지의 응답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 가운데 연령, 성별 그리고 문항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변인을 고려한 기준을 표준화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검사지에 의한 체질진단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였다.
- ④ 검사지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고르게 적용시킬 수 있다.
- ⑤ QSCCⅡ의 평균 판별정확율은 70.08%로 QSCC의 55.56%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정확율을 보인다.(태음인 74.5%, 소음인 70.8%, 소양인 60.0%)
- ⑥ 검사지의 네 가지 척도들은 이전의 검사지에 비하여 고르게 체질진단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 ⑦ 검사지는 분석결과 이전의 검사지들 보다 사상체질 진단에서 정확율 향상, 차별화된 계층별 체질진단 방법의 제시에 의한 객관성 확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

(4) 박성식 등<sup>28)</sup>은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 일치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설문지를 통한 사상체질 진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설문지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고 체질진단의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체질판정 일치율은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Ⅰ)와 이 자료를 판별식을 이용하여 판별한 결과가 제일 높았으나 이것은 동일 설문지를

재분석한 것이며, 다음은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Ⅰ)의 판별식을 이용한 결과와 QSCCⅡ의 일치율이 55.6%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체질을 임상적으로 진단할 때는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Ⅰ)의 판별식을 이용한 결과와 QSCCⅡ의 결과를 함께 참고하여 체질진단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QSCCⅠ을 체질진단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 2) 사상체질진단 설문지 외의心性연구

김종우 등<sup>29)</sup>의 "알콜리즘 환자의 인격특성에 관한 예비연구-MMPI와 사상체질을 중심으로", 박희관 등<sup>30,31)</sup>의 "사상체질과 최면반응성에 관한 연구"와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응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김인태 등<sup>32,33)</sup>의 "응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이제마의 지인론, 사상인과의 비교 고찰"과 "心經附註의 사상과 이제마 사상과의 비교" 등이 있다.

박희관 등<sup>30)</sup>은 "사상체질과 최면반응성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면 반응성을 직접 측정 후 사상체질분류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각각의 사상체질에 따라 최면반응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군 간의 최면반응성의 고저 정도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박희관 등<sup>31)</sup>은 QSCCⅡ와 응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실용화하기 위해 개발된 MBTI를 각각 실시하여 상호간의 연관성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이 연구에서 QSCCⅡ로 분석한 사상인의 체질과 MBTI에 따른 심리학적 유형과의 비교는 대체로 체질적 특성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객관적인 사상체질 분류 설문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응의 심

리학적 유형론에 참고할 점이 있다고 하였다.

김인태 등<sup>32)</sup>은 음과 이체마의 知人論과 인간의 유형 연구의 비교에서 이체마와 음의 인간 심성의 분석방법에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여 추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3. 體質證 및 體質病證에 관한 연구

현재까지의 체질증과 체질병증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체질별 임상증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방진단기 및 임상병리 검사소견 등을 통한 연구, 체질증과 병증에 대한 임상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송일병<sup>34-36)</sup>의 “사상인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 “사상인 병증약리의 성립과정과 그 운영정신에 대한 고찰”, “사상인의 체질병증약리에 관한 고찰”과 김종원<sup>1,37)</sup>의 “EAV측정치와 사상 체질유형 및 증풍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체질진단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와 김영우 등<sup>38)</sup>의 “체질진단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Ⅱ”, 이수경 등<sup>39)</sup>의 “신체계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징에 대한 분석”, 김주<sup>19)</sup> 및 류주열<sup>21)</sup>의 임상적 연구 등이 있다. 이 외에 김수범 등<sup>40)</sup>의 “사상인의 痰飲발생기전과 치법의 문헌적 고찰”, 한주석 등<sup>41)</sup>의 “EAV측정치와 병증유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차철주 등<sup>42)</sup>의 “EAV측정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이정찬 등<sup>43)</sup>의 “대변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질 병증에 대한 고찰”, 김선호 등<sup>44)</sup>의 “소변변증의 사상의학적 관점과 상한론적 관점에 대한 비교 고찰”, 하만수<sup>45)</sup>의 “汗을 중심으로 한 체질병증에 대한 고찰”, 문성환<sup>46)</sup>의 “부중에 대한 증치의학과 사상의학의 병리와 약리의 연관성 고찰” 등이 있다.

### 1) 송일병<sup>36)</sup>의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고찰”

송일병은 외형이나 심성이 체질진단의 단서가 되나 최종적 단서는 병증에서 구하여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며, 체질구분의 근거는 병증이 다르기 때문이며 병증의 차이로 체질이 구분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체질병증의 추구정신을 心身病證, 溫熱寒涼四氣의 요약 정신, 체질병증의 인식 배경, 水穀之氣病證과 氣液之氣 病證의 구분 정신, 表裏病證 등으로 요약하였으며, 체질증과 체질병증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병증 및 처방에 대한 다양한 이론접근 및 사 고전환이 필요하다. 즉 병리적으로 발현하는 다양한 증과 <東醫壽世保元>에 쓰여져 있지 않은 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을 정립하기 위해 사상의학적 병, 증, 병증의 정의와 상호간의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해하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약물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처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 ② 체질병증의 객관화 연구로 水穀病證과 氣液病證의 구분정신, 병증의 경중완급에 따른 順逆의 구분정신, 체질에 따른 자율적 조절정신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③ 체질병증과 체질병증약리에 대한 현대의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2) 김종원<sup>1)</sup>은 “체질진단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

각 체질의 장부대소에 따른 증상 및 질병의 상관성 여부와 체질에 따른 특이적 임상적 증상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 내원한 73명을 대상으로 체질진단분류와 질병 및 증상유형과의 관계를 문진

표(19개항목 123문항)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는데 유의성있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1) 체중감소 증상은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에 비해 더욱 빈발하였다
- (2) 구토 증상은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에 비해 더욱 빈발하였다.
- (3) 목이 쉬는 증상은 소음인이 태음인이나 소양인에 비해 더욱 빈발하였다.
- (4) 호흡곤란 증상은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에 비해 더욱 빈발하였다.
- (5) 관절통 증상은 소양인이 태음인이나 소음인에 비해 더욱 빈발하였다.
- (6) 생리통 증상은 소음인이 태음인이나 소양인에 비해 더욱 빈발하였다.

이 연구에 이어 김영우 등<sup>38)</sup>은 1996년 3월에서 1998년 11월 사이에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 196명을 대상으로 사상체질과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새로운 설문지를 이용하여 “체질진단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Ⅱ”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태음인은 체중증가, 땀이 많이 난다, 몸이 붓는다, 허리가 아프다는 증상과 기름진 음식을 잘 먹으며,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 다른 체질에 비하여 더욱 빈발하였다.
- (2) 소음인은 안색이 나쁘다, 목의 이물감, 수면장애, 식욕감퇴, 쉽게 피로해짐, 식사와 무관한 붓의 통증, 설사, 두통, 생리통 증상과 기름진 음식을 잘 안 먹는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 다른 체질에 비하여 더욱 빈발하였다

### 3) 이수경 등<sup>39)</sup>의 “신체계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징에 대한 분석”

경희의료원 동서 종합 건강진단센터에 1995년 2월부터 1995년 5월까지 내원한 196례 검사자의 체질진단을 시행하고 각 사상인에 따른 일반적 특성, 신체계측, 완실무병 조건인 땀, 대·소변, 수면상태, 그리고 각종 검사소견을 살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196례 검사자의 사상체질 진단 결과 태음인 56.1%, 소음인 29.6%, 소양인 14.3%으로 태음인이 가장 많았고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많았다.
- (2) 직업에 따른 사상인의 분포는 사무직, 행정직, 주부는 태음인과 소음인, 연구전문직은 소음인, 사기업 경영은 태음인, 서비스직은 소양인이 많았다.
- (3) 각 체질 진단 설문조사의 특성은 QSCC(1)은 다른 체질이 태양인으로 진단되는 경향이 높고, 1번 설문지는 소음인 판정 정확율이 76.4%로 높았다.
- (4) 각 체질별 체질중에서는 태음인은 땀이 잘 나고 소음인은 땀이 잘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음인은 식욕이 좋으며 찬 음식을 좋아하고 소화가 잘되나 소음인은 식욕이 좋지 않고 더운 음식을 좋아하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비만도의 검사에서 태음인이 비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고혈압자의 사상인 분포에서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은 태음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혈압자의 발생빈도도 태음인이 사상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 (7) 고지혈증과 사상인 분포에서 중성지방은 태음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태음인에게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 발생빈도가 높았으나 총콜레스테롤은 사상인간의 유의성있는 차이가 없었다.
- (8) 간기능 효소와 사상인 분포에서 GPT, GGT는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GOT는 사상인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9) 초음파 검사에 의한 지방간의 발생빈도는 태음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류주열<sup>21)</sup>은 그의 저서 **東醫四象醫學講座**에서 김주<sup>19)</sup>의 **寒熱구분법**을 소개하면서 사상인 병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1) 素病과 消證

素病(素證)은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寒證이나 熱證의 素質을 의미하는 것이고, 消證은 소모, 쇠잔의 의미로 병이 장기간에 걸쳐서 만성적이고 소모성으로 지속되어진 국한된 증후군을 지칭한다. 素證에서 寒證과 熱證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에는 寒熱이 錯雜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寒熱을 구분하는 원칙

병이 오기 전의 상태인 常證과 병이 오고 나서의 상태인 現證을 명확히 관찰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대변과 소변, 감기 시의 증상이 가장 중요하며 그 외에 설질과 설태, 手足의 寒冷, 飮水 양상, 汗出, 기왕력, 생리량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약물반응으로 체질을 구별하는 방법을 논하였는데, 소음인은 陰實陽虛하고 소양인은 陽實陰虛하며 태음인은 陰陽俱實하고 太陽人は 非虛非實하다고 정의하였으며, 모든 소음인 약물은 瀉陰補陽 작용을 하고, 모든 소양인 약물은 瀉陽補陰 작용을

하며, 모든 태음인 약물은 瀉陰瀉陽 작용을 하고, 모든 太陽人 약물은 無補無瀉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약물을 誤投하였을 경우 陰陽의 偏勝과 偏衰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는 데, 이를 기능항진과 기능저하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5) EAV를 이용한 연구

한주석 등<sup>41)</sup>은 "EAV측정치와 병증유형의 상관성 연구"에서 EAV측정치와 사상체질의 유형에 따른 차이점은 없다고 하였으며, 김종원 등<sup>37)</sup>은 "EAV측정치와 사상체질유형 및 중풍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체질과의 상관성 보다는 질환과의 상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4. 기타 체질진단 방법

1)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연구

김종열 등<sup>47)</sup>은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한의학의 四診法인 望聞問切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체질판별 방식의 도입을 논하였다. 연구자는 <東醫壽世保元>의 체질판별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체질판별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정하고, 사상의가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각각의 변수값을 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이러한 변수값들을 기재하는 체질판별표를 제안함으로써 체질판별의 객관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 얼 굴(望診)

얼굴 망진법에 관하여는 김주법<sup>19)</sup>에 가장 상세한 묘사가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대체로 진료의전<sup>13)</sup>이나 辨證十條<sup>14)</sup>의 묘사와 그 방향이 일치하므로 김주법<sup>19)</sup>을 주로 참고하였다.

## (2) 체형과 언행(望診 + 聞診)

### (3) 성 질(問診)

성격 문진은 <東醫壽世保元>의 원문에 바탕하여 여덟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원문의 본의를 파악하고, 전해 내려오는 표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문 문항을 정하였다.

### (4) 증 세

주로 寒, 熱과 비위의 상태 및 음식관계 등을 위주로 설정하였으므로 체질판별의 목적보다는 정기의 상태와 체질적 경향성을 엿보는 데 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 (5) 절 진

손등의 피부 절진을 통해 태음인은 피부가 두텁고, 견실하고, 조직이 성글고 땀구멍이 큰 것으로, 소음인은 피부가 힘없이 들리며 부드러운 것으로, 소양인은 얇고 미끄러운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 외에 늑골의 벌어진 각도 및 맥진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2) 적외선 체열 촬영기를 이용한 연구

- (1) 지규용 등<sup>48)</sup>은 “적외선체열촬영진단기를 이용한 체질분류와 병증진단에 관한 임상적 연구”에서 체질별 사초부위의 체열분포 차이를 보고하였다.
- (2) 조봉관 등<sup>49)</sup>의 “적외선 체열 촬영을 이용한 체질판별의 특징 파라미터의 추출 연구”에서는 26세에서 32세 사이의 건강한 남자 14 명을 실험대상군으로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법에 의해 체질을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피부온도를 측정하였고, 극문혈에 양방향 펄스전압을 걸고 자극 후의 피부 온도 및 맥박수 변동량을 측정하였다.

## 3) 음식반응을 통한 체질진단 연구

섭취한 음식물이 체내에서 각 腑를 거쳐 소화, 흡수되는 과정 중 체질별 장국의 대소 편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체질별 적합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의주 등<sup>50,51)</sup>의 “식품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 분류에 의한 체질식이의 효과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와 김지영 등<sup>52,53)</sup>의 “체질별 식품분류의 타당성과 활용에 관한 小考”와 “체질별 식품표에 근거한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당뇨식단의 초보적 제시”, 김인태 등<sup>54)</sup>의 “粟米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김종덕 등<sup>55,56)</sup>의 “마늘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薯類에 대한 문헌적 고찰”, 윤종현 등<sup>57)</sup>의 “버섯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이자열 등<sup>58)</sup>의 “콩과 팥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이재석 등<sup>59)</sup>의 “참깨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등이 있다.

이의주 등<sup>51)</sup>은 “사상체질분류에 의한 체질식이의 효과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에서 사상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식품의 체질별 분류를 하고, 체질별 식단을 짠 후 건강인을 대상으로 태음인군과 비태음인군으로 분류한 후 일괄적으로 태음인체질 식이를 실시하였는데, 실험 후 결과에서 자각증상과 혈액검사 등에 있어 두 그룹간에 유의성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4) 비만에 관한 연구

김달래 등<sup>60,61)</sup>의 “四象體質과 肥滿의 상관성에 관한 임상적 연구”와 “비만인의 생활특성과 사상체질에 관한 연구”, 조민상 등<sup>62)</sup>의 “비만환자의 체질적 특징에 대한 임상적 고찰”, 김은영 등<sup>63)</sup>의 “비만인의 생활태도와 사상체질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조민상 등<sup>62)</sup>의 연구에서는 그간의 사상체질과 비

만에 관한 연구내용들을 비교, 고찰하였고, 많은 수의 연구 대상자를 확보하여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의 질환과의 상관성 여부를 연구하였다.

### 5) 聲紋 및 손바닥紋, 유전자 분석 등에 관한 연구

박성식 등<sup>64)</sup>의 “사상체질 유형과 지문, 손바닥紋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김달래 등<sup>65-67)</sup>의 “聲紋과 사상체질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聲紋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 연구(I)”, “CSL을 통한 음향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연구” 등이 있다.

유전자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조황성 등<sup>68-70)</sup>의 “유전자 지문법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 연구”, “Amp-FLP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 연구”, “사상체질과 유전학”과 김대운 등<sup>71)</sup>의 “사상체질의 유전성 검토에 대한 통계적 연구”, 김민희 등<sup>72)</sup>의 “유전적 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의 연구” 등이 있다.

## III. 考 察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辨證論〉에서 사상체질의 특징은 外形, 心性, 證에서 나타나므로 이에 근거하여 체질진단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마가 〈辨證論〉등에서 제시한 내용은 포괄적이고 직관적인 것으로 체질진단시 이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外形, 心性, 證의 세 가지 진단기준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향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사상의학 연구의 초기에는 기존의 증치의학적 사고의 틀 안에서 이제마의 사상이론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체질진단 방법도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직

관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정밀한 계측을 통한 체질별 이미지 정형화에 대한 연구와 심리상태 및 임상증상 유형의 체질적 경향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1. 外形에 관한 연구

체질진단의 첫 단계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容貌 詞氣나 體形氣像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임상에서 外形을 통한 진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體形氣像과 容貌詞氣에 있어 體形과 容貌는 정량화가 가능한 인체의 정적인 특징이며 氣像과 詞氣는 그 형태 속에 활동하는 동적 기운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현재까지의 연구 중 박석언<sup>3)</sup>의 두부촉진법, 허만희<sup>8)</sup>의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홍석철 등<sup>10,17)</sup>의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와 “사상인 이목비구의 형태학적 특징 연구”, 이의주 등<sup>11)</sup>의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 고병희 등<sup>16)</sup>의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등은 體形과 容貌의 정량화에 대한 연구이며, 東醫四象診療醫證<sup>13)</sup>의 내용, 辨證十條<sup>14)</sup>의 내용, 권영식<sup>15)</sup>의 사상체질감별법에 관한 연구, 김주<sup>19)</sup>의 진단법 등은 氣像과 詞氣의 동적인 기운을 위주로 한 경험적 연구라 할 수 있는데, 체질진단의 정확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균형있게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1) 體形氣像에 관한 연구

體形氣像이란 장부의 대소가 사초 부위에 따라 기운의 성쇠로까지 이어져 발현되는 것<sup>10)</sup>으로 외형에 대한 정적 관찰 방법론에 해당하며<sup>3)</sup>, 주로 체간부를 위주로 체질별 체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臟腑論〉에서 “肺部位 在顛下背上

胃脘部位 在頷下胸上故 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 在膈 胃部位 在膈故 膈膈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腸部位 在臍故 腰臍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臍腹下故 脊臍下以下 謂之下焦” 라고 하여 인체를 상하전후로 분획하여 네 부위로 나누는 사초 개념을 설정하였고, 〈東醫壽世保元·辨證論〉에서 “太陽人 體形氣像 腦作頁之起勢 盛壯而 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而 腦作頁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而 胸襟之包勢 孤弱” 라고 하여 사초개념을 기초로 한 체질별 體形氣像을 설명하고 있다.

박석연<sup>3)</sup>의 연구에서는 얼굴형과 피부 및 두상의 형태를 측진을 통해 체질을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체질에 따른 두상의 형태나 두피의 상태, 후두부 침각의 형태에 대한 내용은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허만회<sup>9)</sup>의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연구”는 양와위를 취한 자세에서 체간의 전면부를 기준한 수평거리만을 기준하여 체형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각 기준선에서의 둘레 및 체적에 대한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체질의 특징적인 체형을 불완전하게 계측하였다. 또한 개인한의원에서 연구자 1인이 대상자에 대한 체질진단을 한 점과 내원 환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가 고르지 않은 점 등은 연구 방법의 객관성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측정 대상자 분포에서 소음인의 경우 대부분이 여자였는데, 이는 여성체형 특성상 하초 부위가 상초 부위에 비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 대상자가 소음인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 연구는 간편하고 실제화된 방법으로 〈東醫壽世保元〉의 體形氣像 이론에 근거하여 실제 계측을 통한 최

초의 연구로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홍석철 등<sup>10)</sup>의 “體幹部의 四象體質別 形態學的 특징에 관한 연구”는 삼차원 영상 진단기를 이용하여 입체적이고 정확한 신체계측을 시도한 연구로서 수기 측정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며, 체간 전면부의 수평거리만 계측하였던 허만회<sup>9)</sup>의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東醫壽世保元〉에서 제시한 사초의 기준을 해부학적 구조에 근거한 31항목의 체적, 전표면적, 높이를 측정하고 25가지의 사초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제시한 사상인의 형태에 대체로 부합하였다.

각 체질별 사초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사초의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가장 유의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연구대상자의 연령층이 다양화되고 데이터 축적을 통한 체질판별 프로그램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임상적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주 등<sup>11)</sup>의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에 비해 침수법에 의한 부피측정, 질량산출을 비롯한 다양한 항목을 계측하였고, 평형측정판법에 의해 인체의 무게중심을 측정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무게중심의 측정은 동적인 자세에서의 체질적 특징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 시도로 보이며, 소양인의 무게중심이 타 체질에 비해 위에 있다는 결과는 소양인의 胸實足輕한 기상에 대한 검증이 되었다고 본다.

남자의 경우 전반적인 계측항목에서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여자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나는 항목이 매우 적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 체질진단의 기준으로서의 체형기상의 중요



도가 덜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 2) 容貌詞氣 연구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辨證論〉에서 “少陽人 胸實足輕 剽銳好勇,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라 하여 容貌詞氣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였으나, 이 구문 외에는 容貌詞氣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容貌詞氣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거나 움직일 때의 인상, 느낌, 자세, 태도 등을 容貌詞氣라 하며, ‘體形氣像論’이 외형에 대한 정적 관찰이라고 한다면 ‘容貌詞氣論’은 그에 대한 동적 관찰이라 하여 그 특성을 정의할 수 있다.<sup>3)</sup>

현재까지의 容貌詞氣에 관한 연구는 인체의 다양한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안면부의 관찰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얼굴에는 형상, 골격, 耳目鼻口의 위치관계, 피부색, 주름 등의 변화가 적은 부분과 입술, 눈, 표정 등 변화가 많은 부분들의 신호를 통해 선, 후천적인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17)</sup>

東醫四象診療醫註<sup>13)</sup>과 辨證十條<sup>14)</sup>의 내용, 권영식<sup>15)</sup>의 사상체질감별법에 관한 연구, 김주<sup>19)</sup>와 류주열<sup>21)</sup>의 연구 등은 경험에 의거한 임상적인 내용이다.

東醫四象診療醫註<sup>13)</sup>은 〈靈樞·通天篇〉의 오행체질론과 혼합된 사상체질관이 보이고 있으며, 辨證十條<sup>14)</sup>에서의 기상, 특징, 행보, 성음 등에 대한 내용과 권영식의 인상이나 행동의 성향에 대한 연구내용들은 임상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하겠다.

문성환<sup>4)</sup>의 “四象醫學과 證治醫學의 形象醫學의 내용”에서는 증치의학의 형상적 시각에서 사상체질별 面形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面形에 있어 소양인은 돌출형이고 소음인은 흡수형이라는 가설은 고병희 등<sup>5)</sup>의 연구에서 검증되었으며, 얼굴에서 양인

은 상정이, 음인은 하정이 발달하였으리라는 가설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얼굴에서 특정 부위가 발달하였다는 것이 단순히 큰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특징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증치의학에서의 형상추구 정신을 요약하며 사상의학과의 접목을 시도한 내용으로 향후 사상의학과 전통한의학회의 형상의학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고병희 등<sup>16)</sup>의 “四象體質別 頭面部的 形態學的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는 두면부에 대한 체질별 경향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는데,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 특이자를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두면부의 체질별 특징에 대한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는 체질별 두면부 특징에 대한 기존의 임상적인 경험이나 가설을 검증한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홍석철 등<sup>17)</sup>의 “四象人 耳目鼻口의 形態學的 특징 연구”는 고병희 등<sup>16)</sup>의 연구방법과 동일하게 사진 측정을 통한 耳目鼻口의 체질별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耳目鼻口의 실제 측정을 통해 각 체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귀의 세로길이에 대한 이수의 비율에 있어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높다는 결과는 소양인의 이수가 타 체질에 비해 위로 들려있다는 고병희 등<sup>16)</sup>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으며, 그 외에 소양인은 중안부위가 돌출된 전후의 쌍구형이며 鼻의 각도가 가장 예리하며, 태음인은 비부위인 중안부위가 함몰의 특징을 지니며 코 비익부 중안의 면적이 최대이며 두안부의 전후 돌출이 최소이며, 소음인의 코 비익부 중안의 면적이 최소라는 결과도 고병희 등<sup>16)</sup>의 연구에 이어 재차 검증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고병희 등<sup>16)</sup>의 연구와 홍석철 등<sup>17)</sup>의 연구는 향후 계측의 자동화 연구가 진행된다면 임상적으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석철 등<sup>18)</sup>의 “四象體質別 上顔部の 形態學的인 특징에 관한 연구”는 上顔部の 등고선 형태를 육안으로 분석하여 태음인은 우측이 우세하며 소양인과 소음인은 좌측이 우세하게 나타난 고병희 등의 연구<sup>16)</sup>결과에 대해 moire를 이용하여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고병희 등의 연구<sup>16)</sup>와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으며 임상에서 체질진단시 활용 가능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김주<sup>19)</sup>와 류주열<sup>21)</sup>의 연구는 기운의 특징적인 양상을 중요시하는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고, 고병희 등<sup>16)</sup>의 연구는 실제 계측을 통한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얼굴형이나耳目鼻口의 형태에 관한 연구내용은 상호 연관성이 많고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안면부 형태를 통한 체질진단시에는 실제 계측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내용과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외형에 대한 각종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최근의 연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제시한 체질별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내용에 근거하여 각 체질별로 정형화된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검증된 각 체질의 특징적 체형과 용모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삼차원 영상진단기와 같은 계측기의 활용과 이를 통한 체질판별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성별, 연령별, 체질별 차이에 따른 평가를 각 계층별로 차등화하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며,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체형 및 용모의 변화,

비만의 형태 등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構造的·靜的인 상태의 사상인 특징의 연구에서 機能的·動的인 상태로의 분석 및 해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sup>2)</sup>

## 2. 心性에 대한 연구

心은 이제마의 본체론 중 가장 근원적인 본체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인 체질진단의 근거 중 하나이다.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人稟臟理와 人趨心慾을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臟腑大小와 心慾의 흐름이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五臟之心은 中央之太極이요, 五臟之肺脾肝腎은 四維之四象이다”라고 하였고 “浩然之氣 出於肺脾肝腎 浩然之理 出於心 仁義禮智四臟之氣 擴而充之則 浩然之氣 出於此也 鄙薄貪穢之心之慾 明而辨之則 浩然之理 出於此也”라 하여 心과 四臟의 관계를 太極과 四象, 즉 ‘則物’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心慾과 臟腑大小와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sup>3)</sup>

즉 이제마는 장부대소에 따라 태소음양인을 구별하였으며 심은 이러한 장부대소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각 체질에 따른 心性의 특징은 후천적 변화 요인에 의해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임상에서 활용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이에 이제마는 性質과 才幹, 恒心과 心慾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사상인의 心性을 파악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위주로 하여 개발된 것이 사상체질변증을 위한 설문지이다.

최근에 개발된 QSCC II의 경우 판별정확율이 70% 정도이므로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연구방법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필요로 하는 임상연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진단방법이므로 지속적인 설

문지 보완작업을 통해 판별정확율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박성식 등<sup>28)</sup>의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몇 가지 설문지를 체질진단에 이용할 때는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판별식을 이용한 결과와 QSCC II의 결과를 함께 참고하여 체질진단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김인태 등<sup>32)</sup>의 연구와 박희관 등<sup>30,31)</sup>의 연구에서 이제마와 음의 인간심성의 분석 방법에 유사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 음의 네 가지 유형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병행된다면 사상체질에 대한 이해와 체질진단 설문지내용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향후 설문지 내용의 보완을 위해서는性情의 차별적 개념을 세밀히 연구하여 설문지에 활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김강산 등<sup>73)</sup>은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을 통해서 본 四象人 病論의 접근”에서 性氣는 ‘나’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나에 내재된 일정한 경향성으로 한가지로 꾸준하게 나타나므로 사상인을 변별하기 위한 질문에 있어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묻게 되는 근거가 되며, 情氣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상인 변별을 위한 질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관해서 살피게 되는 근거가 된다고 논하였다. 또한 현대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腦연구를 性情과 연계시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성정의 현대적 의미를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證(體質證 및 體質病證)에 대한 연구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辨證論〉에서 “明知其人而又明知其證 則應用之藥 必無可疑”라고 하여 明知

其人과 明知其證을 종합하여 체질을 감별하도록 하였고<sup>4)</sup>, “人物形容 仔細商量 再三推移 如有迷惑則 參互病證 明見無疑 然後 可以用藥”라고 하여 외모를 자세히 살핀 후에 의혹이 있으면 병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즉 明知其人은 心身兩面의 관찰에서 사상인의 체질속성을 아는 것이고, 明知其證은 사상인의 체질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증과 병리적 증을 함께 관찰하는 것으로 서로 선후의 상관성을 갖고 체질증과 체질병증을 관찰하는 것이다.<sup>35)</sup>

송일병<sup>36)</sup>은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고찰”에서 이제마의 체질병증 정신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체질진단의 최종적 단서는 병증이라 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정립된 병증이론으로 향후 체질진단의 객관화 작업을 위한 병증연구의 기초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종원<sup>1)</sup>은 “체질진단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에서 체질증과 체질병증이 임상적으로 각 체질에 따른 질병이나 빈발하는 증상이 다르게 관찰될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들을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류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의미있는 연구라 하겠다.

이수경 등<sup>39)</sup>의 “신체계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징에 대한 분석”연구는 사상인의 체질증에 대한 설문조사와 고혈압, 비만, 지방간 등의 체질별 경향성과 일반검사를 함께 통계조사한 것으로 체질증과 병증에 대한 현대화, 객관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주<sup>19)</sup> 및 류주열<sup>21)</sup>의 연구는 임상적 경험과 체질관에 따른 독특한 내용으로써 류주열<sup>21)</sup>은 東醫四象醫學講座에서 태양인은 非虛非實, 태음인은 陰陽

俱實, 소양인은 陽實陰虛, 소음인은 陰實陽虛 하다고 정의하여 각 체질별 생리, 병리적 특성과 이에 따른 치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증치의학적인 음양, 허실, 보사의 개념을 사상의학 이론에 접목시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4. 기타 연구

김종열 등<sup>47)</sup>의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표준화된 항목과 양식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四診法이 충분히 적용되면서도 체질판별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공통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체 임상적, 학술적 토인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질판별표를 기초로 체질진단을 한다면 객관적이면서도 진단 과정에서의 정보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외선 체열 촬영진단기를 이용한 지규용 등<sup>48)</sup>의 연구와 조보관 등<sup>49)</sup>의 연구에서는 체질별 피부온도 분포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피부온도 분포를 사상체질별 온열량 四氣와 직접 연관을 짓는 것은 사상인의 생리적 특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계절이나 질환의 유무에 따른 검사의 재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적외선 체열 촬영진단기를 이용한 피부온도 측정방법은 체질진단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의주 등<sup>51)</sup>은 “사상체질분류에 의한 체질식이의 효과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체질별로 유의성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음식은 약물보다 성질의 편향이 약하며 조리과정 중에서 편향된 성질이 중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연구가 어려운 편이다. 그러므로 체질별 음식 반응에 대한 연구는 성질의 편향성이 강한 음식물(육류, 어패류 및

寒熱의 두드러진 특성을 지닌 것)을 위주로 하여 세밀한 연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박성식 등<sup>64)</sup>의 지문과 손바닥紋에 대한 연구는 形的인 것이 氣像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 관한 내용이므로 體形氣像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김달래 등<sup>65-67)</sup>의 聲紋에 관한 연구는 容貌詞氣 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IV. 結 論

### 1. 外形에 관한 연구

경험과 직관적 관찰을 통한 氣像과 詞氣 위주의 연구가 선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體形과 容貌의 실제 계측을 통한 각 체질별 이미지 정형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체질진단의 정확률 제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균형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향후 간편하고 정확한 계측기의 활용과 각 체질별 체형의 곡선도 비교, 연령 증가나 비만에 따른 체형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안면부나 체형의 세부적인 형태나 이미지를 통일된 용어로 정의하고 각 세부 기준을 전체적으로 합산하는 진단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 2. 心性에 대한 연구

각종 연구와 진단의 객관화 등을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기법이 체질진단에 응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함에는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판별식을 이용한 결과와 QSCCⅡ의 결과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性情의 차별적 개념이 세밀하게 연구되어 설문지에 적용되어야 하며, 음의 심리적인 四類型論에

대한 이해 및 다면적 인성검사, 16성격요인검사 또는 성격유형검사 등과 같은 심리검사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證(體質證 및 體質病證)에 대한 연구

체질증과 체질병증에 대한 연구는 원리론적 연구와 체질별 임상증상 유형과 검사조건에 관한 연구, 증치의학적 개념을 사상의학 이론에 적용시켜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향후 현대적인 의미의 다양한 병증을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객관화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체질의 편차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인 臟局의 大小 및 臟理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參 考 文 獻

1. 김종원 : 체질진단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8(1), pp.337-348, 1996.
2. 송일병 :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 연구에 대한 현황 및 전망, 사상의학회지 10(1), pp.3-9, 1998.
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pp. 120-121, p.136, 1998.
4. 문성환 : 사상의학에서의 형상의학 정신과 증치의학에서의 형상의학 정신의 비교고찰, 사상의학회지 8(1), p.33, 1995.
5. 권영식 : 四象方藥合編, 서울, 행림서원, pp.37-42, 1973.
6. 이병행 : 침도원류증마, 서울, 행림서원, pp.347-348, 1974.

7. 이문호, 홍순용 : 사상체질유형과 체격 및 신체 형태지수와의 비교연구, 사상의학회지 2(1), 1990
8. 허만희, 고병희, 송일병 : 사상체질의 형태학적 도식화를 위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1), 1989.
9. 허만희, 송정모, 김달래, 고병희 :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4(1), 1992.
10. 홍석철 외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p. 104, 1998.
11. 이의주 외 :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1998.
12. 이의주 외 : 사상인의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2), 1998
13. 이태호 : 東醫四象診療醫全, 서울, 행림출판, 1990.
14. 박인상 : 東醫四象要訣, 서울, 소나무, pp.44-47, 1992.
15. 권영식 : 사상감별법에 대하여, 의림 97호, p.17, 서울, 1973, 의림사.
16. 고병희 외 :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8(1), 1996.
17. 홍석철 외 : 사상인 이목비구의 형태학적 특징 연구, 사상의학회지 10(2), p.223, p239, 1998.
18. 홍석철 외 :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1998.
19. 김주 : 성리임상론, 서울, 대성문화사, pp.40-44, pp.44-56, 1997.
20. 홍석철 외 :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형태학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1998.

21. 류주열 : 동의사상의학강좌, 서울, 대성문화사, pp.176-203, 1999.
22. 이의주 외 :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Ⅰ)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7(2), 1995.
23. 김선호 외 :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5(1), 1993.
24. 김선호 외 :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표준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7(1), 1995.
25. 이정찬 외 :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5(1), 1993.
26. 이정찬 외 :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8(1), 1996.
27. 김달래 외 :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6(1), 1994.
28. 박성식, 박은경, 최재영 :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분석, 사상의학회지 11(1), pp106-107, 1999.
29. 김종우 외 : 알콜리즘 환자의 인격특성에 관한 예비연구-MMPI와 사상체질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3(1), 1991.
30. 박희관, 이종화 : 사상체질과 최면반응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9(2), 1997.
31. 박희관, 이종화 : 이체마의 사상체질과 음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2), 1998.
32. 김인태 외 : 음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이체마의 지인론, 사상인과의 비교 고찰, 8(2), 1996.
33. 김인태 외 : 心經附註의 사상과 이체마 사상과의 비교, 9(2), 1997.
34. 송일병 : 사상인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6(1), 1994.
35. 송일병 : 사상인 병증약리의 성립과정과 그 운영정신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8(1), p.3, p.7-8, 1996.
36. 송일병 : 사상인의 체질병증약리에 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10(2), p.4, 1998.
37. 김종원 외 : EAV의 측정치와 사상체질유형 및 증풍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7(2), 1995.
38. 김영우, 김종원 : 체질진단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Ⅱ, 사상의학회지 11(1), 1999.
39. 이수경 외 : 신체계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징에 대한 분석, 사상의학회지 8(1), 1996.
40. 김수범 외 : 사상인의 痰飲발생기전과 치법의 문헌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2(1), 1990.
41. 한주석, 송일병 : EAV의 측정치와 병증유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6(1), 1994.
42. 차철주 외 : EAV 측정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8(2), 1996.
43. 이정찬, 김달래 : 대변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질 병증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4(1), 1992.
44. 김선호, 김달래 : 소변변증의 사상의학적 관점과 상한론적 관점에 대한 비교 고찰, 사상의학회지 4(1), 1992.
45. 하만수 : 汗을 중심으로 한 체질병증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5(1), 1993.
46. 문성환 : 부종에 대한 증치의학과 사상의학의 병리와 약리의 연관성 고찰, 사상의학회지 5(1), 1993.
47. 김종열 외 :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의학회지 10(1), 1998.

48. 지규용 외 : 적외선체열촬영진단기를 이용한 체질분류와 병리진단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4(2), pp.30-63, 1993.
49. 조봉관 외 : 적외선 체열 촬영을 이용한 체질판별의 특징 파라미터의 추출, 사상의학회지 7(2), 1995.
50. 이의주 외 : 식품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7(1), 1995.
51. 이의주 외 : 사상체질분류에 의한 체질식이의 효과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1), 사상의학회지 10(2), 1998.
52. 김지영 외 : 체질별 식품분류의 타당성과 활용에 관한 소고, 사상의학회지 7(1), 1995
53. 김지영, 고병희 : 체질별 식품표에 근거한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당뇨식단의 초보적 제시, 사상의학회지 8(1), 1996.
54. 김인태, 송일병 : 粟米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9(2), 1997.
55. 김종덕, 고병희 : 마늘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9(2), 1997.
56. 김종덕, 송일병 : 薯類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9(2), 1997.
57. 윤종현, 고병희 : 버섯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9(2), 1997.
58. 이자열, 송일병 : 콩과 팥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9(2), 1997.
59. 이재석, 고병희 : 참깨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9(2), 1997.
60. 백태현, 김달래 : 사상체질과 비만의 상관성에 관한 임상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8(1), 1996.
61. 김달래 : 비만인의 생활특성과 사상체질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9(1), 1997.
62. 조민상 외 : 비만환자의 체질적 특징에 대한 임상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10(2), 1998.
63. 김은영, 김종원 : 비만인의 생활행태와 사상체질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1(1), 1999.
64. 박성식 외 : 사상체질 유형과 지문, 손바닥紋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1998.
65. 양승현, 김달래 : 蠶紋과 사상체질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8(2), 1996.
66. 김달래 외 : 蠶紋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 연구(1), 사상의학회지 10(1), 1998.
67. 김달래 : CSL을 통한 음향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연구, 사상의학회지 11(1), 1999.
68. 조황성 외 : 유전자 지문법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 연구, 사상의학회지 8(2), 1996.
69. 조황성 외 : Amp-FLP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 연구, 사상의학회지 9(2), 1997.
70. 조황성 : 사상체질과 유전학, 사상의학회지 10(1), 1998.
71. 김대운 외 : 사상체질의 유전성 검토에 대한 통계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11(1), 1999.
72. 김민희 외 : 유전적 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의 연구, 사상의학회지 11(1), 1999.
73. 김강산, 송일병 :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을 통해서 본 四象人 病論의 접근, 사상의학회지 11(1), p.256, 1999.